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The Characteristics of Couples by Their Desires for a Second Child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천혜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eon, Hye-J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desire for a second chil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355 married men and women who have only one child currently.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their desire, or a lack thereof, for a second child. Group I consisted of married people who wanted to have another child, and whose spouse wanted the same. Members of Group II were in a marriage where only the wife wanted to have another child. Members of Group III were in a marriage where only the husband wanted a second child. Group IV consisted of participants who did not want another child, and whose spouse agreed with them. The research questions were (1) how different those four groups are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what are the reasons to stop having children and to have another child, and (3) what are the perceptions of the current low fertility rate in Korea, and the policies designed to increase birth r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wife's age, husband's educational level, expectant level of household economy, age at marriage, marriage duration, and the time length between marriage and birth of the first chil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four groups. The reasons to stop having children were expected constraint of privacy and tim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 and economic pressure. The most pronounced reason for wanting another child was the desire to give their first child a sibling. Group III had more serious disagreement about having another child than did Group II.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in the perceptions of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low birth rate. These perceptions included: undermine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nd weakened family ties.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low fertility), 사회인구학적 특성(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둘째 자녀 희망 여부(desire for a second child)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덜어놓고 낳다보면 거지신세 못 면한다’(1963),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 ‘둘도 많다’(1982),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1987),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1989). 그동안 정부가 가족계획을 위해

사용한 표어들이다.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이 주를 이루던 정부의 인구정책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정반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발단은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각계 될 평균 출생아수)이 1.47로 세계 평균 1.53보다도 낮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여년간의 합계출산율의 경향은 1.59~1.19사이에서 점진적 하락과 점진적 상승이 혼재하여 하락과 상승의 반복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상승보다는 하락 추

* 주 저 자 : 천혜정 (E-mail : hjcheon@ewha.ac.kr)

세가 강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서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6명대에서 1명대로 감소하기까지 100년 이상이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 만에 1명대의 출산율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복지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구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을 저하가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가? 우선 출산율의 감소로 노동인구수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을 가져오며, 낮은 사망률에 의해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즉, 출산력 저하는 노동력 공급,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김승권, 2003).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국토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여전히 세계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출산율을 끌어올려 유년인구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떠안아야 할 복지비용은 이중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의 증가만으로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여성신문, 2001. 7. 27).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축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출산을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결혼연령의 상승 및 결혼율의 저하, 그리고 기혼여성의 소자녀관 정착이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2002). 또한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승권, 2003).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에의 참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이다(한유미·곽혜경, 2004). 여성 취업률이 높으면서도 출산율도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의 예에서, 그리고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취업 자체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Hoem & Hoem, 1989; Hofferth & Deich, 1994; Dewit & Ravanera, 1998).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한다든지(김승권, 2002, 2003), 출산촉진요인과 출산억제요인을 식별하여 출산력의 추이를 예측한다든지(전광희, 2002),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한유미·곽혜경, 2004) 등 정작 자녀를 1명만 둔 소위 저출산 가족의 여성과 남성, 부부의 관점에 대한 논의

는 부족한 편이다. 비록 출산이 인구학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대부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저출산의 문제를 너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을 유지·확대한다고 볼 때, 출산은 남녀 또는 부부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저출산이 누구의 문제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성격과 해결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부가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첫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의 개념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유계숙·정현숙, 2002), 둘째 자녀는 부부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부의 연령, 결혼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여성의 취업 등이다(서한샘, 1998; 전광희, 2002; 한유미·곽혜경, 2004; Hoem & Hoem, 1989). 특히, 첫 자녀에 대한 남편의 육아 협력이나 원만한 부부관계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으며 이것은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기현, 2000; 박정희·장영애, 2003; Unger & Wandersman, 1988). 일본의 경우 양질의 보육시설이나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문화일보, 2004. 11. 3). 따라서 출산이라는 것은 부부의 선택이며,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물론 일반적인 자녀출산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아내(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부간에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따라 남편과 아내 둘 다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 출산을 원하는 경우, 혹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후, 각각의 집단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출산 이유 및 단산 이유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둘째 자녀 희망에 따른 각각의 집단이 저출산 현상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남편과 아내의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하는지, 둘 다 원하지 않는지, 남편만 자녀출산을 원하는지, 혹은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지 등 네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출산 이유 및 단산 이유는 무엇인가?
- 셋째, 배우자 중 한쪽만이 둘째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의견차이의 심각성 수준은 어떠한가?
- 넷째,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저출산 현상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의 표집

본 연구는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권에 거주하며 지금 현재 자녀가 한 명인 기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가입여성 연령을 45세로 제한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출산 및 자녀계획이 대부분 종료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자녀가 한 명인 기혼남녀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를 통해 자녀가 한 명인 기혼남녀를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방식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대상에게 질문지를 직,간접적으로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배부한 500부중 4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기재를 하였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355부가 최종적으로 연구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는 부부 중 한 명이 응답하되,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녀출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출산계획을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내만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남편만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154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98명(27.6%)이었고,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라도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즉 아직까지 부부간에 자녀출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103명(29%)으로 이 중 남편만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69명, 아내만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34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출산계획 (n=355)

출산계획	빈도(%)
남편과 아내 둘 다 원함	98(27.6)
아내만 원함	34(9.6)
남편만 원함	69(19.4)
남편과 아내 둘 다 원치않음	154(43.4)

3. 측정 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연령, 학력 및 직업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족의 경제수준을 0~10까지의 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며(숫자가 클수록 경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향후 5~10년 사이에 가계 경제수준을 예상하게 하여 역시 0~10까지의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결혼 및 출산관련 변인으로 결혼 연령, 결혼 지속기간,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및 이상 자녀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출산 이유 및 단산 이유

출산 이유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답하도록 하였는데, <보기>의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3개를 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출산 이유는 “아들의 필요성”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주변사람(시댁, 본가, 처가 등) 들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노후에 대한 두려움” “형제자매의 필요성”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종교적 이유”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함” “사회적 책임감(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다.

단산 이유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응답자에게 답하도록 하였으며, 역시 <보기>의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3개를 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단산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 “육체적, 정신적 부담”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원치않는 성별의 자녀나 장애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임”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임신이나 분만과정, 출산 후 몸매 등에 대한 불만” “지구환경이나 인류존속에 대한 회의” 등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의견차이의 심각성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의견차이의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아주 심각하다까지 5점 척도 1문항으로 질문하였다.

4) 저출산 현상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70의 신뢰도를 보였다.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혹은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부터 매우 효과적이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0의 신뢰도를 보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둘째 자녀 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가 한 명인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은 20대, 30대, 40대에 따라 출산희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아내는 20대, 30대, 40대에 따라 출산희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내가 30대와 40대인 경우 남편과 아내 둘다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인 경우 남편과 아내 둘다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아내의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교육수준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희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출산희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대졸

<표 2>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¹⁾

변인		전체 (n=355) ²⁾	남편과 아내 둘다 원함 (n=98)	아내만 원함 (n=34)	남편만 원함 (n=69)	둘다 원치 않음 (n=154)	F/x ₂	
연령	남편	20대	3(3.6)	2(66.7)	-	1(33.3)	7.052	
		30대	62(78.6)	13(19.7)	7(10.6)	16(24.2)		
		40대	14(16.7)	3(21.4)	-	6(42.9)		
	아내	20대	34(12.3)	21(61.8)	0	3(8.8)		27.805***
		30대	207(75.0)	56(27.1)	24(11.6)	36(17.4)		
		40대	34(12.3)	3(8.8)	3(8.8)	6(17.6)		
학력	남편	고졸이하	19(5.4)	2(10.5)	-	9(47.4)	18.150**	
		대졸	231(65.3)	74(32.0)	20(8.7)	37(16.0)		
		대학원이상	104(29.4)	22(21.2)	14(13.5)	22(21.2)		
	아내	고졸이하	23(6.5)	4(17.4)	-	5(21.7)		10.838
		대졸	255(72.2)	73(28.6)	23(9.0)	44(17.3)		
		대학원이상	75(21.2)	20(26.7)	11(14.7)	19(25.3)		
직업	남편	무직, 학생	14(4.1)	2(14.3)	4(28.6)	2(14.3)	10.793	
		서비스/사무직	144(42.5)	40(27.8)	9(6.3)	24(16.7)		
		전문기술/관리직	181(53.4)	51(28.2)	18(9.9)	39(21.5)		
	아내	무직, 학생	170(48.7)	56(32.9)	15(8.8)	38(22.4)		11.975
		서비스/사무직	56(16.0)	12(21.4)	4(7.1)	8(14.3)		
		전문기술/관리직	123(35.2)	28(22.8)	15(12.2)	21(17.1)		
현재 경제 수준		4.93(1.95)	4.82(1.25)	4.97(1.42)	5.05(1.15)	4.94(1.26)	.426	
미래 예측 경제 수준		6.77(1.29)	6.90(1.07)b	7.48(.75)c	7.02(1.31)b	6.43(1.37)a	8.711***	
결혼 연령	남편	30.19(2.69)	29.71(2.31)a	31.68(3.46)b	30.48(3.02)a	30.03(2.45)a	5.092**	
	아내	27.81(2.41)	27.38(2.26)a	28.91(3.07)c	28.38(2.12)bc	27.60(2.36)ab	5.256***	
결혼 지속 기간		6.33(4.44)	4.41(3.29)a	5.29(3.62)ab	6.57(5.08)bc	7.68(4.47)c	12.679***	
결혼 후 ~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1.76(1.27)	1.70(.92)ab	1.79(1.55)ab	1.40(.59)a	1.95(1.56)b	3.164*	
이상 자녀 수	1명	73(20.7)	3(4.1)	3(4.1)	17(23.3)	50(68.5)	45.335***	
	2명	211(59.8)	70(33.3)	22(10.5)	36(16.7)	83(39.5)		
	3명 이상	69(19.6)	25(37.3)	7(10.4)	16(23.9)	21(38.4)		
	평균	2.02(.72)	2.28(.62)b	2.13(.55)b	2.02(.78)ab	1.84(.74)a		7.648***

1) 각 수치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를 나타냄

2)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3)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혹은 대학원 이상)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치않는 비율이 높았다. 남편과 아내의 직업에 따라서는 둘째 자녀 출산희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경제 수준을 0~10까지의 척도로 표기하게 한 결과, 평균 4.93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10년 사이에 가계 경제수준을 예상하게 한 결과, 평균 6.77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경제수준에 따라 출산 희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래 예측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출산희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미래 예측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미래 예측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미래 예측 경제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령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연령이 높은 경우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내의 결혼연령이 낮은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령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임신과 출산을 실제로 겪은 여성은 본인의 연령이나 결혼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지속기간의 경우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치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자녀출산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혼 후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도 길어질수록 남편과 아

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치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혼 후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경우 자녀출산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가 높았으나, 이상 자녀수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 둘 다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이상 자녀수가 3명이상인데 남편과 아내 둘 다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음을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2.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출산 이유 및 단산 이유

연구대상자들 중 자녀출산을 더 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보고한 출산 이유는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출산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형제자매의 필요성(130명, 36.1%)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함, 주변사람으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등이 자녀를 더 출산하는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산 이유는 출산계획에 따라, 즉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 아내만 원하는 경우, 남편만 원하는 경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즉,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하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자녀에게 형제나 자매가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출산 이유

출산 이유	전체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함 (n=98)			아내만 원함 (n=34)			남편만 원함 (n=69)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아들의 필요성	9(2.5)	13(3.6)	16(4.4)	6(6.1)	7(7.1)	13(13.3)	3(8.8)	-	-	-	3(4.3)	-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1(3)	31(8.6)	30(8.3)	1(1.0)	14(14.3)	19(19.4)	-	7(20.6)	6(17.6)	-	5(7.2)	3(4.3)
주변사람으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7(1.9)	35(9.7)	24(6.7)	4(4.1)	27(27.6)	14(14.3)	-	2(5.9)	4(11.8)	2(2.9)	1(1.4)	6(8.7)
노후에 대한 두려움		4(1.1)	10(2.8)	-	3(3.1)	6(6.1)	-	-	2(5.9)	-	1(1.4)	1(1.4)
형제자매의 필요성	130(36.1)	7(1.9)	8(2.2)	74(75.5)	5(5.1)	4(4.1)	23(67.6)	1(2.9)	-	18(26.1)	1(1.4)	3(4.3)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8(2.2)	3(8)	8(2.2)	6(6.1)	3(3.1)	7(7.1)	-	-	-	2(2.9)	-	1(1.4)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함	6(1.7)	40(11.1)	18(5.0)	4(4.1)	15(15.3)	8(8.2)	1(2.9)	14(41.2)	4(11.8)	1(1.4)	9(13.0)	2(2.9)
사회적 책임감		4(1.1)	14(3.9)	-	4(4.1)	6(6.1)	-	-	6(17.6)	-	-	-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연구대상자들 중 자녀출산을 더하기를 원하지 않는 응답자가 보고한 단산 이유는 <표 4>와 같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단산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84명, 23.3%), 육체적, 정신적 부담(70명, 19.4%), 그리고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35명, 9.4%)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15명, 4.2%)과 불임(9명, 2.5%)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중요한 단산 이유로 꼽고 있는 반면, 아내만 원하는 경우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남편만 원하는 경우는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을 가장 중요한 단산 이유로 꼽고 있다.

에서 매우 심각하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출산계획에 따라서 의견 차이의 심각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편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보다 심각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편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는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아내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자녀를 가지기를 원치 않을 때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배우자 중 한쪽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 남편보다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희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의 심각성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

<표 4>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단산 이유

단산 이유	전체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치않음 (n=154) ₁			아내만 원함 (n=34)			남편만 원함 (n=69)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경제적 부담	84(23.3)	42(11.7)	46(12.8)	56(36.4)	22(14.3)	28(18.2)	6(17.6)	3(8.8)	8(23.5)	11(15.9)	16(23.2)	9(13.0)
육체적, 정신적 부담	70(19.4)	62(17.2)	42(11.7)	41(26.6)	35(22.7)	27(17.5)	11(32.4)	6(17.6)	1(2.9)	18(26.1)	17(24.6)	8(11.6)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	15(4.2)	16(4.4)	29(8.1)	15(9.7)	13(8.4)	15(9.7)	-	1(2.9)	-	-	1(1.4)	12(17.4)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35(9.7)	87(24.2)	63(17.5)	12(7.8)	64(41.6)	45(29.2)	3(8.8)	9(26.5)	4(11.8)	19(27.5)	8(11.6)	13(18.8)
원치않는 성별의 자녀나 장애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5(1.4)	9(2.5)	6(1.7)	3(9)	-	2(1.3)	-	1(2.9)	-	2(2.9)	6(8.7)	4(5.8)
임신이나 분만과정, 출산 후 몸매 등에 대한 불안	1(3)	5(1.4)	22(6.1)	1(6)	4(2.6)	14(9.1)	-	-	4(11.8)	-	1(1.4)	3(4.3)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3(8)	4(1.1)	-	3(1.9)	2(1.3)	-	-	-	-	-	2(2.9)	-
지구환경이나 인류존속에 대한 회의	2(6)	3(8)	7(1.9)	2(1.3)	2(1.3)	1(6)	-	-	3(8.8)	-	1(1.4)	1(1.4)
불임	9(2.5)	2(6)	-	4(2.6)	2(1.3)	-	-	-	-	2(2.9)	-	-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표 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부부의견차이의 심각성

	아내만 원함 (n=34)	남편만 원함 (n=69)	t
의견차이의 심각성 (M, SD)	2.36b (.65)	2.73a (.98)	-1.958*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4.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저출산 현상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가족해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변화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변화에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부담 감소, 생활환경의 개선, 소비시장 위축, 생활비 감소의 순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가족해체현상의 증가라는 변화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하거나 아내만 원하는 경우보다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변화에 덜 동의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는 아내만 원하는 경우보다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변화에 덜 동의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 가족해체의 증가라는 변화에 동의를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혹은 시행을 고려 중인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에서 매우 효과적임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산전후 및 육아 휴직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 자녀교육 및 양육비, 주거지원, 불임치료를 비롯한 건강보험, 그리고 출산축하금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변화	전체 (M, SD)	순위	남편과 아내 모두 원함	아내만 원함	남편만 원함	남편과 아내 모두 원치않음	F
생활환경의 개선	3.27 (.94)	4	3.23(.79)	3.06(.88)	3.23(1.10)	3.35(.96)	1.031
생활비 감소	2.96 (1.10)	6	2.90(1.14)	3.09(1.13)	2.96(1.10)	2.98(1.07)	.272
자녀양육 부담감소	3.32 (1.21)	3	3.12(1.15)	3.44(1.30)	3.43(1.24)	3.38(1.20)	1.294
국가경쟁력 약화	3.61 (.99)	1	3.71(.88)bc,	3.94(.81)c	3.33(1.15)a	3.58(.98)ab	3.471*
소비시장 위축	3.16 (.97)	5	3.24(.73)	3.29(1.19)	3.06(1.02)	3.12(1.02)	.743
가족해체 증가	3.61 (1.08)	1	3.84(.99)b	3.71(1.08)b	3.24(1.16)a	3.61(1.07)b	4.049**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표 7>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른 각 집단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정책	전체 (M, SD)	순위	남편과 아내 모두 원함	아내만 원함	남편만 원함	남편과 아내 모두 원치않음	F
출산축하금	1.98 (.96)	6	2.11(.92)	2.00(.77)	1.90(.95)	1.94(1.02)	.904
주거지원	2.76 (1.03)	4	2.88(1.00)	2.94(.88)	2.58(1.17)	2.73(1.01)	1.490
자녀교육 및 양육비 지원	3.22 (1.10)	3	3.28(1.09)	2.97(1.26)	3.30(1.08)	3.21(1.09)	.772
산전후 및 육아 휴직	3.48 (1.03)	1	3.46(.98)	3.26(.82)	3.42(1.18)	3.56(1.02)	.883
보육시설	3.45 (1.17)	2	3.41(1.22)	3.47(1.13)	3.49(1.16)	3.46(1.16)	.077
건강보험 등	2.57 (1.02)	5	2.74(1.05)	2.59(.85)	2.49(1.03)	2.49(1.03)	1.37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출산은 부부 공동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1명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을 둘째자녀의 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의견 차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더 원하는 경우, 아내만 원하는 경우, 남편만 원하는 경우,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더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연령, 남편의 학력, 미래 예측 경제 수준에 따라 둘째 자녀의 출산 희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과 아내의 직업, 그리고 현재 경제 수준의 지각에 따라서는 출산 희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내의 연령이 많고, 미래 예측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만 둘째 자녀 출산을 원하는 경우 남편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결혼 연령, 결혼지속기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및 이상 자녀수에 따라 둘째 자녀의 출산 희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연령이 높은 경우 아내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아내의 결혼연령이 낮은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높았다. 또한 결혼지속기간이 긴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남편만 자녀출산을 원하는 경우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 단산 이유로는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육체적 정신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이 부부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인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임 발생율이 15~20%정도로 100쌍중 15~20쌍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으며 유배우 가입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부는 전국 총 63만 5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불임부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임시술비는 현재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외국의 경우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범국가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형제자매의 필요성이 압도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사람으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그리고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그 다음 순위

를 보이고 있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4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출산을 하는 이유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편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내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우자 중 한쪽만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 남편보다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희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는 둘째 자녀를 가지기를 원치 않고 남편은 자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부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그동안 부부나 가족문제보다는 인구학적 차원의 재생산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등과 맞물려 출산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출산과 관련된 결정이 부부나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더 맡게 될수록 출산율과 여성취업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Booth, & Duvall, 1981; Brewster & Rindfuss, 2000)는 남편이 자녀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아내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해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장 높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고하였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혹은 시행을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이 세 가지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수준이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스럽다. 또한 자녀를 단산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언급이 되었으며, 미래 자신의 가계의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혹은 시행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들이 가계경제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에 급급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의 실시가 둘째 자녀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보다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가족원의 노동 분담이 가능한 직접적인 정책적 고안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 제도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사나 동료의 눈치, 원적 복

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주위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등의 정책의 목적은 '출산장려'라기 보다는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저출산현상에 대한 연구가 인구학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과 저출산을 문제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에 따른 부부의 특성,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의견차이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식이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출산이 부부의 공동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를 쌍으로 모집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저출산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측정도구가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접수 일 : 2005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2월 0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25일

【참 고 문 헌】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3). **한국사회의 출산을 추락과 향후과제**. *WelHealth Research*, 6, 1-17.
 문화일보(2004). 2004. 11. 3.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 31-44.
 서한샘(1998). **출산력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신문(2001). 2001. 7. 27.
 유계숙·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39-47.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2).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

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 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 29-40.
 Booth, A., & Duvall, D. (1981). Sex roles and the link between fertility and employment. *Sex Roles*, 7, 847-856.
 Brewster, K. L., &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Dewit, M., & Ravanera, Z. (1998). The changing impact of women's educational attainment on the timing of Canada.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25, 45-67.
 Hoem, B., & Hoem, J. M. (1989).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on second and third births in Sweden. *Population Study*, 43, 47-67.
 Hofferth, S. L., & Deich, S. G. (1994). Recent U. S. child care and family legisl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5, 424-448.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